

부엌
부엌
부엌



우리 집에 딱 맞는 가구 직접 만들어보자

리빙 & 아트
생활 속 목공

초급 1개월·중급 2개월 배우면
최소한의 공구·도구 이용해
나만의 가구 누구나 제작 가능

있는 기술을 짧은 기간에 배울 수 있다. 초급 1개월, 중급 2개월 정도면 웬만한 가구는 도면부터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

김씨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공구를 갖추는게 좋다고 이야기한다. 치수를 잴 수 있는 줄자와 스퀘어 자, 망치, 십자 드라이버, 전동드릴, 이중 드릴비트, 목공본드, 전지가위와

펜치, 붓과 롤러, 전기타카, 사포 등이다. 이런 도구들은 가구를 만드는 외에도 집안에서 고장난 물건을 고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도면 그리는 법을 배우야 한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필요한 나무는 온라인 목공소를 통해 도면에 맞춰 잘라달라고 요청하면 집까지 완벽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나무가 준비되면 다시 도면대로 연필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주고 목공본드와 전기타카, 못을 이용해 조립하고 고정하면 된다. 못을 나무에 바로 박을 경우 나무가 쪼개질 수도 있으므로 드릴비트를 이용해 먼저 구멍을 뚫고 나서못으로 고정한다.

모형이 갖춰졌다면 원하는 색의 페인트를 골라 칠해준다. 페인트는 냄새가 나지 않고 독성이 없는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한다. 스펀지 붓을 이용해 얇고 고르게 퍼 발라주는데,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1~2번 반복해서 칠해준다. 페인트가 모두 마르면 사포로 샌딩작업을 하고 왁스나 오일을 칠해주면 완성이다.

원목 가구는 만들때나 완성후에도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 김씨는 특히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나무를 달래가면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잘 만들어진 가구라도 원하는 공간에 배치한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자리를 잡느라 가구가 뒹굴(?)을 해요. 서랍문이 잘 안닫히거나 문짝이 안 열리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가구를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놔두면 차츰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여성이라도 소품이나 작은 가구쯤은 거뜬히 만들 수



'생활 속 목공'을 꿈꾸는 DIY 가구 전문가 김인재씨가 전동드릴을 이용해 못을 박고 있다.

강렬한 붉은 색의 벽면 책꽂이, 블루 그레이의 사이드 테이블, 빈티지 화이트 컬러의 작은 편지함까지... 내 집에 꼭 맞는 가구 하나만 들여놓아도 집안 분위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게 내가 직접 만든 가구라면 어떨까.
DIY가구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완제품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작음했지만 내가 사용할 물건을 원하는 크기와 컬러로 직접 만들어 꾸미고 싶은 사람들이 DIY가수로 눈을 돌리고 있다. 과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알려준다. 그들 스스로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공구를 구비한 후 온라인 목공소를 통해 나무를 얻는다면 집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광주 일곡동에서 DIY 가구점 'FUNNY DIY'를 운영하고 있는 김인재(42)씨는 공방을 운영한 지 이제 만 1년이 됐다. 그녀 역시 7~8년전 혼자서 반제품 가구를 만들었던게 시작이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인테리어를 하려고 봤더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반제품 가구를 구입해 만들어 보기 시작했지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자신감이 생겼고 도면을 그리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그녀가 운영하는 공방은 고가의 기계나 공구가 많아 야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최소한의 공구와 도구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생활속 목공'을 꿈꾸는 곳이다.

광주국제영화제 레드카펫 행사

14일 문화전당 5·18광장...조재현·박상민 등 참여



조재현

박상민

2015광주국제영화제가 14일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에는 영화배우 조재현을 비롯해 이한위, 서지혜, 이유비 등과 영화제 홍보대사인 김영호·황인영·심형탁·강예원·금단비가 참석한다.

또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시상을 위해 이희호 여사가 참여하며 개막작으로 초청된 러시아 영화 '테스트'의 주연배우 엘레나 안과 알렉산더 코드 감독도 참석한다. 그밖에 '중국영화 특별전' 등 한중 영상 교류 협력을 위해 왕원민 중국 총영사를 비롯해 '전영학원' 부원장 등이 함께한다.

개막식 사회는 배우 박상민과 김지은이 맡았으며 걸그룹 '타히티'와 재즈 크로스오버 밴드 '블루'의 축하공연도 마련돼 있다.

광주국제영화제는 14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롯데시네마 총장로관과 광주 영상복합문화관(G시네마)에서 열리며 31개국 103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www.giff.org. 문의 062-228-99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피아노아카데미, 베토벤 소나타 연주

14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박형숙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지난해 5월부터 정기연주회로 32곡에 이르는 베토벤의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진행 중이다. 14일(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열리는 연주회는 '베토벤을 위하여' 세번째 시리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월광'으로 유명한 '피아노소나타 14번'을 박수미(광주대 겸임교수)씨가 들려주며 이현주(전남대 강사)씨는 활발한 선율이 인상적인 6번을 들려준다.

또 '고별'로 잘 알려진 '소나타 26번'을 박형숙씨가 들려주며 김형미(광주대 강사)씨는 '피아노 소나타 22번'을, 신수경(전남대 교수)씨가 '피아노 소나타 제31번'을 선사한다.

지난 1990년 창단된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지역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으로 창립연주회 이후 지금까지 바로코 음악연주, 슈베르트 이전 낭만작품 연주, 향토작곡가 작품 연주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매년 1차례 신인연주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창작피아노 독주곡 공모도 열고 있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제작 '공재 윤두서'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지난해 제작한 '공재 윤두서'전의 도록이 제9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받았다.

'공재 윤두서'전 도록은 특별상 대상작으로 선정, 2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지난해 발간된 도록 중에서는 중앙박물관 미술부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와 중앙박물관 아시아부 '동양을 수집하다' 등이 선정됐다.

또 박물관 직원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논문이나 저서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학술상에는 논문 21편, 전시도록 15편의 총 36편이 응모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Readers are Leaders

신문·뉴미디어 엑스포

NEWSPAPER EXPO2015

2015.5.12(화) ~ 15(금) / 서울시 시민청 및 서울광장

신문사 홍보관
신문사 취업설명회

서울광장 / 10:00 ~ 18:00
홈페이지 www.nexpokorea.or.kr 참가신청

세부 행사 일정

프 로 그 램						
장소	시간	5.12(화)	5.13(수)	5.14(목)	5.15(금)	
서울광장 10:00~18:00						
신문사 홍보관 및 보도사진전						
시민청 지하 1층	무대	10:50~11:40	개막식	전문기자 특강(국민)	전문기자 특강(여투)	-
		11:40~13:20	클러리4 (FREE)	범망의 휘파람 (이매진)	더뮤즈 오카리나 (김부영)	You & I Art Family (소노뷰)
		13:20~14:10	마술쇼	전문기자 특강(환경)	마술쇼	-
		14:10~15:00	신문사 이벤트(중앙)	전문기자 특강(연합)	-	-
		15:00~15:50	전문기자 특강(서경)	신문사 이벤트(해럴드)	-	-
		15:50~16:40	신문사 이벤트(배경)	전문기자 특강(경향)	-	-
주변	16:40~17:30	전문기자 특강(중앙)	전문기자 특강(매경)	전문기자 특강(해럴드)	-	
	13:00~18:00	캐리커처		-	-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09:00~21:00	전시		전시(14:00 종료)	
		14:00~16:00	-	신문의 미래전략 세미나	-	
		14:30~15:50	-	NE 현장 교실	NE 현장 교실	
		14:00~15:00	-	-	-	
		15:00~16:00	신문사 취업설명회(여투)	신문사 취업설명회(문화)	신문의 미래전략 세미나	
		16:00~17:00	신문사 취업설명회(서울)	신문사 취업설명회(한겨레)	신문사 취업설명회(국민)	
17:00~18:00	-	-	신문사 취업설명회(중앙)			

문의 : 한국신문협회 02-733-2251~2 | www.nexpokorea.or.kr

주최 : 한국신문협회 서울특별시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INK